
자주하는 질문(FAQ)

-엠폭스 관련-

2023. 8. 10.



중앙방역대책본부

목 차

I	엠폭스의 특성	1
II	역학적 특성	2
	1. 발생 국가	2
	2. 감염 및 전파경로	4
III	진단검사	7
IV	격리 및 접촉자 관리	10
V	예방 및 치료	12
VI	의심환자 대응	15



엠폭스의 특성

Q1. 엠폭스는 어떤 질병인가요?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으로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Q2. 엠폭스에 감염되었을 때 주요증상은 무엇인가요?

-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 등이 나타나는 증상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하기도 하며 보통 1~4일 후에 발진이 나타납니다.
 - ※ '22년 5월 이후 비풍토병 국가에서 유행 중인 사례는 발진 전 전구기(발열 등)가 없거나 발진 후에 전구기가 나타나기도 함. 특정부위(항문생식기)에 발진 수가 5개 미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궤양, 구강 점막 궤양, 항문직장 통증, 안구 통증, 이급후증 등을 동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 등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발진은 대체로 반점부터 시작하여 여러 단계로(반점→구진→수포(물집)→농포(고름)→가피(딱지))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 통증과 가려움증 동반하기도 함.
- 이러한 임상증상은 약 2~4주 지속될 수 있습니다.

Q3. 치명률은 어느 정도 인가요?

- '22년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발생 중인 서아프리카 계통 엠폭스는 대부분 2~4주 후 자연 치유되며, 치명률은 1% 미만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 ※ 면역저하자, 8세 미만 소아, 습진 병력, 임신 및 모유 수유자에서 중증도가 높을 수 있음.
 - ※ 풍토병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중앙아프리카 계통 엠폭스의 치사율은 약 10%로 보고됨

Q4. 엠폭스에 감염되어도 안심할 수 있나요?

- 엠폭스에 감염된 경우, 대부분 경미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2~4주 후 완치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대증적인 증상 완화 치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다만, 특정 인구집단(면역저하자, 소아,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에서 합병증(이차세균 감염, 피부 손상, 심한 위염, 설사, 탈수, 기관지폐렴 등)이 발생하는 등 중증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폐렴, 패혈증과 같은 합병증이나 뇌(뇌염) 또는 눈에 감염(각막염, 각막 궤양 등)이 일어난 경우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Q1. 엠폭스이 풍토병으로 알려진 국가는 어디인가요?

-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2022년 5월 이전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 가나 : 동물에서만 확인

* 베냉, 남수단 : 유입사례만 확인

*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콩고, 시에라리온

Q2. 최근 엠폭스 주요 발생국가는 어디인가요?

- 2022년 5월 7일, 영국에서 1건의 엠폭스 유입사례(나이지리아) 보고 이후 유럽, 북미 등 111개국에서 23년 5월 9일까지 87377명이 확진, 14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2주차에 7576명 발생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시아 지역은 2023년 2~3월 이후 증가 추세*입니다.

* 2023년 아시아 발생 현황: 총 10개국에서 283명 발생, (일본) 22년 8명 → 23년 119명, (대만) 22년 4명 → 23년 75명

Q3. 해외유입 및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있나요?

- 2023년 5월 16일, 현재 해외유입 사례 4건,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2건입니다.

Q4. 현재 국내에서 옴폭스 감염에 대해 크게 우려할 상황인가요?

- 옴폭스에 대한 충분한 경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국내외 발생 양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5. 옴폭스 국내 유입시 코로나19처럼 대규모 유행을 할까요?

- 국외 옴폭스 환자 발생은 22년 8월 정점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주로 밀접 접촉으로 감염되는 옴폭스는 호흡기 감염병인 코로나19와는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내 전문가들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Q1. 엠폭스의 전파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감염된 동물(쥐, 다람쥐,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원숭이 등) 또는 오염된 물질에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 (피부병변 부산물) 감염된 사람동물의 체액, 피부·점막 병변(발진, 딱지 등)에 직접 접촉
 - (매개물) 감염된 사람동물이 사용한 물건, 천(의류, 침구 또는 수건) 및 표면에 접촉
 - (비말) 호흡기 분비물(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접촉
 - (기타)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
- 주로 유증상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비말전파도 가능 하나 코로나19 같은 호흡기감염병에 비해 가능성이 낮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Q2. 엠폭스의 동물-사람간 전파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감염된 동물(설치류, 영장류 등), 사체(육류 또는 혈액 포함)의 직접 접촉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합니다.

Q3. 엠폭스의 사람-사람간 전파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엠폭스에 감염된 사람은 유증상 기간(보통 2~4주) 동안 전파력이 있습니다. 감염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타액, 소변, 구토물) 등이 피부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성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Q4. 엠폭스는 임산부-태아/신생아 간 감염이 가능한가요?

- 감염된 임산부의 태반을 통하여 태아에게 감염시킬 수 있으며, 분만 중 산모와의 초기 신체적 접촉을 통해 신생아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Q5. 잠복기가 5~21일이라고 하는데, 무증상 기간동안 감염이 가능한가요?

- 일부 엠폭스 환자에서 무증상 감염 사례가 있으나, 무증상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Q6. 의사환자가 엠폭스 진단검사결과 음성이어도 잠복기 동안 격리해야 하나요?

- 의심환자로 신고된 분에 대해서는 엠폭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엠폭스 관련 격리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Q7. 엠폭스 확진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관리대상 접촉자는 성접촉 파트너, 숙식을 함께 하면서 1회성이 아닌 침구, 음식, 그릇 등을 공유하여 보호구 없이 환자 유증상기에 체액에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최종 노출일로부터 21일간 자가 모니터링하면서(수동감시)하면서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음, 노출 후 14일 이내 예방접종에 동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대상 접촉자 관리방식(23.4.27.)】

구분	정의	관리방식	
관리 대상 접촉자	① 성접촉 파트너	- 증상 시작부터 모든 유형의 성접촉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기간 : 21일 ◆ 자가격리 :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집단과 생활 하는 직업군은 근무제한 권고 ◆ 관리 방식 : 보건교육 및 수동감시 ◆ 노출 후 예방접종 : 14일 이내
	② 동거 가족 등	- 캠핑, 숙박과 같은 유사한 환경의 접촉자(동거인, 간병인 등)을 포함 - 유증상기 환자와 의복, 침구, 식기 및 음식 등을 공유한 사람	
	③ 의료인 등	- 검체채취 중 또는 검사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 (찔림, 흡입 등) - 적절한 보호구 착용 없이 환자의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시술 및 처치 등을 시행한 경우 예) 기관 절개술, 기관내 삽관, 심폐소생술, 기관지 내시경 등 - 적절한 보호구 착용 없이 상처난 피부나 점막이 유증상 환자의 체액, 비말에 노출된 경우 - 구강 및 비강 병변이 있는 유증상 환자의 비말에 적절한 보호구 없이 노출된 경우	
	④ 기타 고위험	※ 개별사례별 상황을 고려하여 분류 가능 - 확진환자와 밀접한 피부접촉이 발생한 경우 - 식기 등을 공유하는 경우 - 의료환경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하는 환자와 관련된 상처 (찔림 등)	

Q8. 엠폭스는 호흡기 전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흔하지는 않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며,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과의 직간접 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 다만,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특정 임상적 환경(삽관발관, 수술·시술 등 처치)에서는 공기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9. 엠폭스 감염예방을 위해 개인에게 권고되는 준수사항이 있나요?

-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감염예방수칙을 잘 준수하고 오염된 손으로 눈,코,입 등 점막 부위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발진 등 의심환자와의 직·간접 접촉을 삼가하고, 의심 증상이자 사용한 물품(침구류, 수건, 의복, 세면대 등)을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고유종인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접촉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엠폭스 발생국가로부터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동거인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병변을 긴 옷 등으로 감싸 노출을 최소화, 침구 및 식기 등 별도 사용, 공간 분리 등)
-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Q1. 국내에서 엠폭스 진단이 가능한가요?

- 그렇습니다, 현재 엠폭스 진단검사는 질병관리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가능합니다.

Q2. 일반적으로 엠폭스 확인을 위한 검사방법과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엠폭스 진단검사 방식은 유전자검출검사로 검사실에서 검체 접수 후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Q3. 국내에서 엠폭스는 어떤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가 진행되나요?

- 엠폭스에 사용되는 검체는 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과 혈액 등이 있습니다.

Q4. 의료기관 내 엠폭스 의심환자 발생시 검사의뢰 및 검체는 어떻게 이송하나요?

- 우선, 엠폭스 의심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소재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사례조사 후 시도에서 의사환자로 분류할 경우, 시도에서 배정한 1인실 격리입원 병상으로 이송*하여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보건소에서 검사기관(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검체를 이송합니다.

* 단, 신고의료기관에서 관리조치(1인실 격리입원 및 검체 채취 등)가 가능할 경우 이송하지 않음

Q5. 엠폭스 진단검사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엠폭스 진단검사는 유전자검출검사법(Real-time PCR)을 이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Q6. 잠복기에 진단검사를 하면 엠폭스 감염 확인이 가능한가요?

- 엠폭스는 감염병 특성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 감염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7. 의료기관에서의 검체 채취 방법이 궁금합니다.

- 엠폭스 검체종류는 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과 혈액 등이 있습니다.
 - 피부병변이 있는 시기에는 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혈액을 채취하며, 이 중 피부병변 검체는 필수검체에 해당됩니다.
 - 채취방법은 환부 2곳 및 주변을 소독, 건조 후 드라이 스왑으로 채취하며 각각의 스왑을 각각 개별 무균용기 또는 바이러스 수송배지(VTM)에 수집합니다.
또한, 가피는 환부 2곳 및 주변을 소독, 건조 후 26G 주사침 등을 이용하여 탈피하고 채취하여 VTM 또는 무균용기에 수집합니다.
 - 피부병변이 없는 전구기에는 구인두도말 및 혈액 등을 채취합니다. 구인두도말은 전구기 환자 구인두에서 VTM에 도말물 1개를 채취하고, 혈액은 EDTA가 처리된 튜브에 5 ml 이상 채취합니다.

Q8.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시 보호장비 착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 검체 채취 시 보호장비는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권고하는 개인보호구는 개인보호구 4종으로 호흡기 보호를 위해 일회용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눈 보호를 위해 고글, 전신 보호를 위해 일회용 장갑 및 방수성 긴팔가운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한 개인보호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Q9. 엠폭스 검체 용기 별도 지원 여부 및 허용되는 검체용기 범위가 궁금합니다.

- 엠폭스 검체 용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판되는 VTM 또는 무균용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해당 검체는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에 해당되며,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라 검체 포장 방법을 준수하시어 3중 포장 용기에 검체를 포장하시면 됩니다.

Q10. 엠폭스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있나요?

- 엠폭스 검사는 질병관리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진단검사가 가능합니다.

Q11. 해외여행력 없이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검사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료진이 엠폭스를 의심하여 관할보건소로 신고를 할 경우, 기초 역학조사 후 의사환자로 판단된다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2. 해외여행 중 엠폭스 감염 위험이 있는 동물과 접촉력이 있는 경우 국내 입국 후 검사가 가능한가요?

- 입국 시 관련 내용을 건강상태질문서에 내용을 기재하시고, 검역관에게 알릴 수 있으며, 기초역학조사 후 검역소의 판단에 따라 의사환자에 해당할 경우 1인실 격리병상으로 이송 후 검체 채취 및 검사의뢰가 가능합니다.

Q1. 관리대상 접촉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감염원 증상, 개인보호구 착용, 체류시간, 체류 장소 환경에 따라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 확진환자가 첫 증상이 발생한 날로부터 피부병변 가피가 탈락될 때까지 감염병환자 등과 아래와 같은 접촉이 있는 경우
 - 신체 직접 접촉(성접촉 포함)
 - 오염된 도구(의복, 침구류 등) 접촉
 - 오염된 환경에서 흡입 또는 점막 노출

감염원	경로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병변액 • 체액 • 호흡기분비물 • 오염도구 	적절한 보호구 없이 아래 부위에 직접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처난 피부 / 상처 없는 피부 • 호흡기 • 기타 점막(구강, 안구, 생식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공간 공유 • 포옹, 키스, 성접촉 • 의료처치 중 체액 또는 분비 노출 • 오염환경 청소 시 먼지 흡입 • 마스크 없이 대화

Q2. 의사환자가 엠폭스 진단검사결과 음성이어도 잠복기 동안 격리를 해야 하나요?

- 의심환자로 신고된 경우, 엠폭스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엠폭스 관련 격리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국 후 2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머지 기간동안 증상 모니터링 등을 안내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로 재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Q3. 항공기 내 엠폭스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항공기 내 확진환자의 전후좌우, 대각선 1개 좌석 승객을 21일 동안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1개 좌석 이상 3열 이내 승객은 21일 동안 수동감시를 실시합니다.

Q4. 엠폭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입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였어도 엠폭스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검사 대상자가 아니며,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위험도에 따라 격리, 능동감시 또는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Q5. 엠폭스 의심증상자가 건강상태질문서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입국 전 21일 이내 증상이 있었으나, 입국 당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증상 없음’으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모든 해외입국자는 의심증상 여부 등에 대한 검역관의 검역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Q1. 엠폭스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엠폭스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확진된 사람·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기본적인 감염예방수칙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 ① 감염된(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간접적 접촉 피하기
- ②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 피하기
- ③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하기
- ④ 엠폭스 발생국(장소)을 여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Q2. 엠폭스에 대한 예방 백신이 있나요?

- 2세대 두창 백신은 국내 식약처를 통해 승인된 백신으로써, 두창 뿐만 아니라 엠폭스에도 85%의 교차면역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3세대 두창 백신은 두창과 원숭이 두창 모두에 대해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현재, 엠폭스 대응을 위한 비복제 두창 백신(3세대) 도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Q3. 엠폭스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해외여행 예정자 등)?

- 현재 일반 국민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출 전 접종을 시행하고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자를 대상으로 노출 후 접종을 시행함

Q4. 1차접종을 피하접종으로 받았는데, 2차접종을 피내접종으로 받아도 되나요?

- 1차접종을 피하접종으로 받은 경우, 2차접종을 피내접종으로 받아 접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피내접종이 우선 권고되고 있으나, 1차접종 시 피부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하접종으로 2차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 1차접종 후 켈로이드 피부인 것을 알게된 경우 등

Q5. 엠폭스 노출된 후 언제까지 접종해야 하나요?

- 노출 후 예방접종의 적기는 4일 이내 예방접종을 받는 것입니다. 4일~14일 사이에 1차접종을 할 경우 백신효과가 4일 이내 접종하는 것에 비해 낮을 수 있습니다.
 - 단, 노출된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14일이 경과된 경우에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면 접종할 수 있으니 의료진과 상의바랍니다.

Q6. 3세대 백신의 비하접종과 피내접종 사이 투여 간격에 차이가 있나요?

- 피하접종과 피내접종 간격을 동일합니다. 1차를 피내접종으로 한 경우 2차 피하접종은 최소 4주 후 접종이 가능합니다.

Q7. 피내접종 시 용량을 너무 많이 접종하였습니다. 재접종해야 하나요?

- 피내접종 시 적정 용량(0.1ml)보다 많이 접종한 경우 재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 접종자의 이상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15~30분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 만약, 피내접종 시 적정 용량(0.1ml)보다 적게 접종한 경우(주사기에서 접종 시 백신 누출 등) 백신 누출부위에서 최소 2인치 떨어진 곳에 즉시 재접종을 실시합니다.

Q8. 1차접종만 했는데 예방효과가 있나요?

- 고위험군에 1회접종 후 147일간 추적 관찰한 실제 접종 결과 연구(Real-world effectiveness)에 따르면 비접종군 대비 접종군의 백신효과는 86%*로, 1회 접종으로도 옴폭스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Real-world effectiveness of a single dose of mpox vaccine in males(Nature Medicine, 2023)

- 다만, 면역은 2차접종 후 14일에 최대치에 도달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최대의 예방효과를 얻기 위해 표준접종일정(최소 4주간격, 2회 접종)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9.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접종간격을 지켜서 재접종하시기 바랍니다.

Q10. HIV 감염자도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3세대 백신은 HIV 감염자에게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 접종이 가능합니다. HIV 감염자는 예방접종 전 의료진과 상의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Q11. 옴폭스 접종자가 이상반응 발생 시, 옴폭스 접종한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하나요?

- 아닙니다. 예방접종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12. 엠폭스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 대부분 경미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2~4주 후 완치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중적인 증상 완화 치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신생아, 어린이 그리고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의료진은 환자의 중증도·사망 위험도를 고려하여, 치료제를 투여하여 기대되는 임상적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므로 치료와 관련하여서는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Q13.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는 대한감염학회와 협력하여 「엠폭스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VI 의심환자 대응

Q1.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엠폭스 의심증상을 1339로 개인이 문의하는 경우 어떻게 안내하나요?

- 1339에서 의심사례를 접수하였을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의심사례를 전파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단계별 대응체계에 따라 대응하도록 안내합니다. 이후 담당과에 관련 내용을 공유합니다.
- * 가급적 1339에서 선(先) 안내 조치, 필요시 담당과에서 추가 답변 등 지원

○ 대응체계



○ 었폭스 및 다른 발진 질환과의 비교

	었폭스 (Mpox)	수두 (Varicella)	대상포진 (Herpes zoster)	단순포진 (Herpes simplex)	홍역 (Measles)
발진 사진	 <p>* 미국 CDC</p>				
발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머리부터 시작해서 전신 팔다리 쪽으로 진행 •경계가 명확하고 중앙이 파인 수포성발진 •대부분 같은 단계의 발진 •손발바닥 침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머리를 포함하여 주로 몸통 쪽으로 진행 •경계가 불명확한 수포성 발진 •발진마다 단계가 다를 수 있음 •손발바닥 침범 드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 전체에 나타날 수 있으며 신경절을 따라 띠 형태로 나타남 •국소적인 부위에 나타나는 수포성 병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소적으로 피부,점막 (눈, 입술 등)모두 침범 가능 •주로 입술 구강 인두, 음부 쪽 발생 •수포, 궤양 동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붉은 반구진성 발진 •얼굴~귀뒤 이후 몸통 중앙 쪽으로 진행 •탈피 가능
임상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열+두통+근육통부터 시작 •고열 가능 •발열 1~4일 이후에 발진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통+근육통부터 시작 •보통은 미열 (38.8도 미만) •발열 0~2일 이후에 발진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증이 먼저 나타날 수 있음 (감각신경 침범) •운동신경 침범의 경우 마비 동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변 부위 통증, 가려움증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열+기침+결막염 •이런 전구증상 수일 발생 후 발진 발생
림프절 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목, 겨드랑이, 서혜부 •단단한 압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뭄